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점에 근거한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 방향 탐색

권유진*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based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Yoojin Kwon*¹⁾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bstract

Developing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is as important as textbook development in education. Home economics subject has been involved in textbook evaluation since 1995, at which the first home economics textbook was under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home economics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even though there were more studies using textbook analysi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eason why subject perspectives were reflected on the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spectives presented by national curriculum and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and the future direction for developing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So this study was related to analyz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and the meaning of subject perspectives in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to drive perspectives consistently presented by the 2007 revised and 2011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spectives in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and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for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development.

1) 교신저자: Yoojin Kw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KICE), Jungdong Building 413, Jong-Dong 15-5, Cheong-Gu, Seoul, 100-784, Republic of Korea
Tel: 02-3704-3948, Fax: 02-3704-3690, E-mail: yoojin.kwon2@gmail.com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subject perspectives for developing textbook, delivers the core concepts and unique values of our subject, and provides the direction for teach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both national curriculum, the perspectives such as management competency, life competency, practical experience, integrative competency for understanding individual and family, career and life planning, and life problem-solving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would be needed to develop the factors of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based on the perspective presented by national curriculum.

Key words: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national curriculum, technology-home economic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2013.3.23)’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최근 교과서의 다양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교과서 및 지도서가 인정교과서로 분류되면서 ‘교과서’의 범주와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UNESCO와 UN에서도 교과서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수업자료로서의 교과서 역할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교과서나 스마트 교과서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 교과서가 이슈화되면서 학습 자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암기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많은 교과서를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에서 검정 또는 인정교과서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교과서 관련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예로는 교과서의 중립성 논란과 독도와 연계된 일본교과서 논란 등이 있어 언론을 통한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흔히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표현되기도 하며, 혹은 교육과정이 밑그림에 해당하는 설계도라면, 교과서는 실제 지어질 건물로 비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못지않게 교육 전문가들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며,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을 위한 자료이며,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즉,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나 성취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교과서의 큰 그림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교과 내용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조직되어 교과 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교과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용 도서는 검정 혹은 인정제도를 통해서 ‘교과용 도서’라는 지위를 승인받게 된다. 물론 채택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로서 승인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결국 교과서에서 평가되어야 할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교과서는 무엇인지, 교과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한 학습 자료를 대표하는 교과서가 어떤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 교육에서 핵심적인 학습 자료인 교과서에 대한 평가기준 또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기술·가정과 관련하여 교과서 인정기준²⁾(안), 수업자료 선정기준(안), 교수·학습과정안 평가기준 등 교과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평가기준들이 개발되어 있고 일부 활용되고 있다. 가정영역의 경우, 제 5차 교육과정까지 국정 교과서 1종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채택 및 선정의 의미가 없었으나, 1995년 부터 사용되었던 검정을 통해 8종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정교과서의 평가기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Eom, 1994). 그 이후 교과서 검정심사를 위한 교과서 검정기준이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며, 최근에 기술·가정교과서가 인정도서로 분류되면서 교과서 인정심사를

2) 교과서 승인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정기준은 인정제에 활용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의미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제도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정제는 교과서 발행을 국가가 하는 것(published by government)이고, 검정제는 국가 승인 후 발행(publish after authorization), 인정제는 발간된 출판물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Cho, et al., 2004).

위한 심사기준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교과별 교과서 관련 평가기준들은 여러 단계의 교과 전문가들의 반복적 연구와 검증을 거친 후, 국가 수준의 평가기준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때 검증 및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과서 평가기준에도 항상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공통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서 평가기준이 교육과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 관련 교과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평가 분야의 연구물들은 대부분 범교과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교과교육학적 접근은 미약하다. 예를 들어 가정교과서 관련 연구보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Ⅱ(2008)’ 등의 범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서 평가기준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가정교과서³⁾ 연구가 교과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대부분이 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영역별 비중 분석 및 외형체제 분석 연구이거나 내용 영역별 교과서 변천 연구(Yoon, 2004; Lee, 2001) 등이었다. 특히 소수 존재하였던 교과서 평가기준 교과연구는 ‘중학교 가정교과서 선정 기준 연구(Kwon & Yoon, 1998)’ 이후, 2000년대 들어서서 거의 전무하다.

최근 2011년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교과교육학적 관점에 근거한 평가기준 간 일관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 평가기준 및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 심의기준 논의까지 가세하면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교육적 평가기준 개발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에 대한 필요성이나 교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평가기준은 교과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로 교육과정에 터하여 교과 관점을 도출하고 이를 교과서 평가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타 연구와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교과서 평가기준이 일관성 있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관점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향후 교과서 평가기준에 교과교육적 특성

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 평가기준의 교과교육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 성격 및 목표와 관련하여 교과서 평가기준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교과서 평가기준 개발할 때 적용해야 할 교과교육학적 방향 또는 원칙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서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왜 교과서 평가기준에 교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는가?
- 2) 2007 개정 및 2011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관점은 무엇이며, 교과서 평가기준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3) 향후 교과서 평가기준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기술과 가정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교과서 평가기준이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라는 영역 특성이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미 제한점이 된다. 둘째, 실과는 검정도서로, 중학교 기술·가정은 인정도서로 구분 고시되어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과(기술·가정)의 교과서 평가기준이 초·중·고 연계도서로서 일관성을 가지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정교과서뿐만 아니라 실과교과서 평가기준을 연구 대상에

3) 가정교과서 평가기준(검정기준 혹은 인정기준(안))은 기술·가정교과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논문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에 한정하여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서’라고 통칭하기로 함.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교과서 평가기준의 경우 실과와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이 연관성이 높다는 점, 둘째, 실과교과서만 검정기준이기 때문에 인정도서를 위한 심사기준에 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 셋째, 학교급별 구분보다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전체로서 일관된 교과관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을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⁴⁾에 근거한 향후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과서 평가기준 관련 선행연구

Alvermann 외(2007)는 교과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3가지 선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교과서는 첫째,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transmission)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고, 둘째, 교과 내용 학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내용을 기술할 때는 편견 없이(unbiased fashion) 기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교과교육에서 의미 있는 교과서란 교과 특성에 따라 교과서 형태와 활용 방법이 달라야 하고, 치우친 내용이 기술되기 보다는 다양한 학습 경험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교과서의 경우, 가정생활과 관련된 가치를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Kwon과 Yoon(1998)이 수행한 교과서 선정기준 연구에 의하면, 가정 교과서에 대한 요구로는 1) 교과서의 외형, 2)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자료, 3) 교과서 단원의 구성, 4) 교과서의 지도내용, 5) 실험·실습 주제와 내용, 6) 그림·사진 및 표의 구성, 7)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과서 평가기준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기술·가정의 경우 교과서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확충되

어야 하며, 특히, 교과서 검정 또는 인정심사를 위한 평가기준과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선정기준에는 그 목적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Jeon과 Park(1999)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의 7가지 요인이 전체의 교과서 평가기준안의 66%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교재의 크기, 색채구성, 제본상태, 겉표지 등 실과 교과서의 특성으로서 교과서의 외형은 평가기준에서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요인들은 1) 교육과정 반영 및 실행의 타당성, 2) 실습 구성 및 전개적 적절성, 3) 내용 서술의 적절성, 4) 단원 구성 및 체계의 적절성, 5) 자료와 내용의 관련성 및 유용성, 6) 표현의 정확성 및 정당성, 7) 교수·학습 과정의 적절성이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교과서 평가기준들은 교과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 내용의 선정 및 조직뿐만 아니라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목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의 변천

1994년 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강연은 ‘중학교 가정 새 교과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주어지는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이것은 가정교과서를 평가하고, 선정하고, 해석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책무가 교사에게 새롭게 주어졌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영역에서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교사철학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2000년 고등학교 2종도서의 검정심사를 위한 검정기준을 시작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평가기준이 개발되었으며, 2001년에는 가정과학 검정기준이 개발되었다. 2007년 8월 중학교 검정도서 검정기준이 고시되었고, 교사용 지도서는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그 다음해 2008년 11

4) 교과 교육과정 중 ‘가정생활’ 영역에 한하여 교과 관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기준 반영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월에 초등 5, 6학년 실과와 고등학교 1학년 검정도서의 검정 기준이 역시 개발되어 고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2011)에 근거하여 2011년 초등 실과는 검정도서로 중등 기술·가정은 인정도서로 구분고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검정기준⁵⁾과 심의기준으로 각각 개발되었다. 2011년 구분고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초등 실과를 제외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도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며, 고로 실과교과서를 위해서는 검정기준이, 기술·가정교과서를 위해서는 인정도서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개발되었다. 또한 2012년에 ‘스마트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기술·가정과 심의기준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크게 2000년, 2008년, 2011년 즈음에 가정교과서의 평가기준이 변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평가기준은 크게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나뉘지며 평가기준이 수정되어 오면서 차이를 보인 것은 대부분 교과기준보다는 공통기준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2008년에 개발된 평가기준의 예를 살펴보면, 주로 공통기준들은 ‘교육과정의 준수’, ‘창의성’, ‘내용의 정확성’, ‘표기·표현 및 편집’이었고, 교과기준은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이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2011년에 개발된 평가기준의 경우에는 ‘창의성’과 ‘표기·표현 및 편집’ 영역이 삭제되고, 관련 항목들은 다른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교과기준에서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는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보다는 선정기준에 더 타당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어, 교과기준은 ‘내용의 선정 및 조직’만으로 축소되었다.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라는 영역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그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 실과의 경우 2008년에 개발된 검정기준 세부 항목은 1) 내용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 및 학년간의 연계성 고려, 2) 학습 분량의 적절성, 3) 과제 및 실습 내용의 실생활 관련성, 4) 과제 및 실험·실습 내용의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자주적 생활 능력 등 생활역량 함양 가능성, 5) 관련 자료의 최신성과 출처의 정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검정기준의 경우 1) 내용의 수준

과 범위의 적절성, 2) 학습 분량의 적절성, 3) 과제 및 실습 내용의 실생활 관련성, 4) 과제 및 실험·실습 내용의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력 함양에의 적절성, 5) 정보의 다양성 및 활용방법의 적절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 평가기준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 개발된 검정기준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들은 1) 내용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 및 학년 간 연계성 고려, 2) 학습 분량의 적절성, 3) 과제 및 실습 내용의 실생활 관련성, 4) 과제 및 실험·실습 내용의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자주적 생활 능력, 의사결정 능력, 탐구력, 실천적 추론 능력 등 생활역량 함양 가능성, 5) 관련 자료의 최신성과 출처의 정확성이었다. 2011년에 개발된 심의기준(안)의 경우, 1) 내용 수준과 범위의 적합성 및 학습량의 적정성, 2) 내용 요소 간 위계성 및 학교급별 연계성, 3) 단원 전개 및 구성 체계의 적절성 및 소재의 참신성, 4) 활동 및 실험·실습의 실천 가능성과 이론 및 체험의 통합적 학습 가능한 구성, 5)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나눔, 돌봄, 배려 관련 활동이 학습 내용과의 적절성, 6) 교과 핵심 역량 함양, 7)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여부 등이 강조되어 개발되었다.

초등 실과 검정기준에 비해, 중학교 기술·가정 평가기준에는 변화가 많이 있었으며, 그것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이나 국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실과 검정기준은 변화된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중학교 기술·가정의 평가기준에서는 초등 실과 기준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인정도서 확대 정책으로 인해 기술·가정교과서가 검정에서 인정으로 변경되었지만, 실과는 여전히 검정도서로 구분되어 있어,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교과서 평가기준⁶⁾이 검정심사를 위한 검정기준, 인정심사를 위한 심의기준, 단위학교의 선정기준 등으로 흩어져 있으나,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준이 개발·활용되도록 평가기준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일관되게 평가기준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6) 교과서 검정 및 선정기준과 교과서 분석기준을 혼용하는 연구들이 많으나, 동일할 수 없으며, 분석 관점, 평가 관점, 연구 관점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상호 보완적인 용어이다(진재관 외, 2008). 진재관 외(2008)에 의하면, 교과서의 개발의 관점, 교과서 활용(사용)의 관점, 그리고 교과서 평가(연구)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각 목적에 따라 관점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Ⅲ. 실과(기술·가정) 교육 관점에서의 교과서 평가기준

1.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 분석

1994년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해진 가정교과서 평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0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평가기준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검정심사를 위한 학교급별 교과서 평가기준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평가기준은 초등 실과만이 검정교과서로 남고 중학교 이후 교과서는 인정교과서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더욱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과서 개발 및 활용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분리된 검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의 하나의 교과로서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서의 특성이 일관성 있게 교과서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급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항목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으로는 2008년과 2011년에 개발된 실과교과서 검정기준(Sim, et al., 2011a), 2008년과 2011년에 개발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검정 및 심의기준⁷⁾(Sim, et al., 2011b), 2008년에 개발된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검정기준, 그리고 2012년에 개발된 기술·가정 디지털교과서 심의기준(Seo, et al., 2012)이 개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검정기준에는 2008년 개발된 실과 검정기준과 2007년과 2008년에 개발된 중등 기술·가정 검정기준이 있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교과기준에는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라는 영역이 있으며, 세 가지 교과서 평가기준 중 교과 항목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 ‘학년간의 연계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을 고려한다는 항목은 세 가지 교과서 평가기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

는데, 이 항목들은 교과서 평가자가 내용 수준과 범위가 적절한지, 학년간 연계성을 고려했는지, 학습 분량이 적절한지를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로는 ‘과제 및 실습 내용의 실생활 관련성’과 ‘과제 및 실험·실습 내용의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자주적 생활 능력 등 생활역량 함양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항목들이 교과 교육과정과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교과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교과서 평가기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단지 차이점을 꼽는다면 초등 기준과는 달리 생활역량 범주에 의사결정 능력, 탐구력, 실천적 추론 능력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즉, 초등과 중등에 공히 생활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중등 교과서의 경우는 초등 교과서에 비해 의사결정 능력, 탐구력, 그리고 실천적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서 평가기준은 2011년, 2012년에 개발된 실과 검정기준, 기술·가정 심의기준(안), 그리고 기술·가정 디지털 교과서 심의기준이 있다. 역시 교과와 관련된 영역은 ‘내용의 선정과 조직’으로서 이전 교과서 평가기준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초등과 중등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용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 학습량의 적정성 등은 공통점이지만,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다양한 자료 제공을 통해 수업의 다양성 및 선택의 여지를 둔다는 측면에서 학습 분량의 적절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1년 중학교 심의기준의 경우 창의성이라는 영역이 삭제되면서 소재의 참신성 부분에 추가되었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을 보면, 초등은 ‘과제 및 실습 내용의 실생활 관련성’과 ‘과제 및 실험·실습 내용의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력 함양에의 적절성’, ‘정보의 다양성 및 활용방법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나, 중등의 경우, ‘활동 및 실험·실습의 실천 가능성과 이론 및 체험의 통합적 학습 가능한 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나눔, 돌봄, 배려 관련 활동이 학습 내용과의 적절성’, ‘교과 핵심 역량 함양’,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여부’

7) 실제 인정심사에 아래 제시된 평가기준이 그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이 개발하여 공개한 인정기준(예시)을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심의기준의 경우는 ‘생활 소양교육, 인성교육, 융합교육 촉진’, ‘핵심역량(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대인관계 능력) 함양’, ‘실생활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평가기준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서 평가기준들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서 평가기준들에서 나타나는 교과목의 항목 중 공통점은 ‘과제나 실습 내용의 실생활의 관련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이점을 들자면,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 접근, 핵심역량 강조, 나눔, 돌봄, 배려 관련 활동의 강조, 지역사회 연계성 고려, 생활소양 교육, 인성교육,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관점들이 교과서 평가기준에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동일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평가기준들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개념이나 교과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통일성이 떨어진다. 또한 교육과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 관점을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과서 평가기준의 교과교육학적 의미

1) 평가기준에 교과 관점 제공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학습 자료(예: e-교과서 등)의 출현으로 인해 교과서의 평가기준은 향후 학습 자료의 평가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교사용 교재, 학생용 교재, 학습 활동지, 학습 자료 등을 하나의 세트에 묶어 수업용 자료(instructional materials)라는 명칭으로 수업을 위해 선정 및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교과서가 아닌 모든 교과서는 검정제 혹은 인정제를 통해서 '교과용 도서'라는 지위를 승인⁸⁾받게 된다. 교과서 채택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로서 승인받는다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제가 확대되고 교과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과교육학적으로도 ‘좋은 교과서란 무엇인가?’, ‘교과서에서 평가되어야 할 항목들이 무엇인가?’와 같은 논의가 중요해졌다. 이는 결국 교과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는 학습 자료를 대표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어떠한 점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의미하며, 이것은 교과교육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Alvermann 외(2007)는 교과교육으로서 교과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교과교육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며, 과학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활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또한 20세기 초반의 John Dewey를 비롯한 발달주의자, 1970년대의 인지심리학자들로 인해 암기 위주의 전달방식의 수업보다는 사고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면서, 교과서의 기능이 참고서적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도구로서의 기능도 병행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과 수업에서 교과서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혹은 어떻게 주로 교과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과서 내용 선정 및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평가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과목의 주요 개념이나 가치 전달

교과용 도서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한 학습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교과서 평가기준은 교과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가치나 덕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

8) 교과서 승인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로 구분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제도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교과서 발행을 국가가 하는 것(publish by government)이고, 검정제는 국가 승인 후 발행(publish after authorization), 인정제는 발간된 출판물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Cho, et al., 2004).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 평가기준이란 교과교육을 위해 활용될 교과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덕목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예를 들어, Park(2006)은 가정교과에서의 교과내용의 통합적 접근, 양성 평등적 가치관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일에 대한 측면, 노동과 소비에 대한 측면, 가족생활과 직업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교과의 실습활동과 지역공동체 참여 관련 내용을 제공하여 'empowerment'가 중심이 되는 관리적 관점도 부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Davis와 Alexander(2009)의 가정교육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델파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순위가 교수·학습 전략이었고, 다음으로 영양교육, 변화하는 가족, 금융문제, 다문화교육 및 다양성, 식품의 안정성, 기술(technology)과 함께하는 교수·학습, 지속가능한 삶 등에 대한 내용 순이라고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덕목(virtue)들이 가정교과에 핵심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교과서에 포함될 것이고, 고로 교과서 평가기준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평가기준이 개발되면서 또 다른 평가기준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지는데, 그것은 교과서 평가기준이 교과 방향 설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교과의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의 다양화는 곧 교과의 성격 및 교수·학습의 특성이 평가기준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는 곧 교사의 전문성과 연관이 되며 교사를 위한 교과교육과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Alvermann 외(2007)는 교과별로 교과서 개발 양식과 항목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 과학교과서는 실험과정을 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수학교과서는 연습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Goodlad가 발표한 교과서 및 학습 자료들의 활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학과 수학 수업에서는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특히 수학의 경우는 워크북이 매우 흔한 학습 자료로 나타났다고 하였다(한

혜정, 2011, 재인용). 위의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교과별 특성에 따라 교과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고로 교과서를 심사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교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eon과 Park(1999)은 교과서와 교육과정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교과서의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것보다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으로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Lee(2010)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으로 실천적 문제해결과정,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소비생활, 그리고 진로교육 등이 검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시하면서 교과서와 교육과정과의 관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Kuuralla와 Rauma(2008)는 핀란드 가정교과서에서 요구되는 식품과 영양 관련 가치들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에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들을 구조화시킨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1) 개인적 차원(individual system), 2) 사회적 차원(social system), 3) 환경적 차원(environmental system)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국 우리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의 가치들과 개념들을 구조화시켜 강조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과서 평가기준을 비롯한 교과 관련 평가기준에 활용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3) 교사교육의 방향 설정

교과서 검정, 인정,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예비교사들에게 이러한 평가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사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 Bell과 Lee(2005) 역시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주요 대상은 교사이지 교과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과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교사교육을 통해 교과서를 학습과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활용하는 기준에 대해 예비 교사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자칫 가정 영역과 같이 교과의 순수지식 구조의 탐구가 목적이 아닌 실생활의 적용을 통한 행동체계 구축 및 유지와 실천을 중시하는 교과의 경우, 교과서 내용 전달에 치우치게 되면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교과서 선정 및 활용 기준을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Alvermann 외(2007)에 의하면, 교사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교과서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어떠한 교재가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적합성(textbook suitability)을 판단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본문에 있는 어려움의 차이를 측정(readability formulas)하는 것으로 양적 판단이다. 외국어의 경우 쓰이는 단어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과목에 따라 성, 나이, 직업, 문화 등 차별적 요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지 혹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가 외국어가 아닌 과목들에서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질적 판단으로 텍스트나 샘플 문단들이 쉬운지, 지루한지, 재미있는지 단조로운지를 판단(consumer judgement)한다. 교사들끼리 혹은 학습자와 함께 교과서 평가기준을 체크리스트로 개발하여 신뢰로운 판단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는 교사들이 학습자의 반응이나 태도를 관찰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도 현실적 방법이다. 고로 선정에 관한 평가기준 설정 및 선정과정에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반드시 이러한 과정에 교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교육과정의 교과 관점과 교과서 평가기준의 연관성

1. 2007 개정 및 2011 개정 교과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은 각각 2007년, 2011년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교과 교육과정 문서로서 7차 교육과정 이후 개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을 차수로 표시하지 않고 통상 개정의 연도를 붙여 교육과정 문서를 표기하게 되었다. 문서 구조상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단원별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나, 반면 2011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성격에 포괄한 교과 목표, 내용 영역 및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와 같은 총론에 나타난 교과 운영상의 변화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총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과 교육과정은 2011년에 개정되어 총론과 각론이 별도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문서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교과 성격을 분리하지 않고 교과 목표라는 대분류에 포함시킨 것, 단원별 내용을 성취기준으로 전환시킨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변화는 전 교과에 해당하는 변화이지 교과상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과의 성격 및 목표가 약간의 용어(terminology)들의 변화가 있을 뿐 교과의 성격 및 교과의 목표상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러나 교과 내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내용 체계에 한정되어 있던 대영역, 즉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라는 대영역의 구분이 성격 및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공통 목표를 별도로 두었으나,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별도의 공통 목표를 두지 않고, 가정생활 및 기술의 세계 영역의 목표로 구분하여 진로교육 영역을 각각 포함시켰다. 이는 2007년 개정에서부터 유지되어온 대영역으로서 초등 가정에서 중등 가정에 이르는 내용 요소들의 위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고 판단된다.

2.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 관점 분석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는 교과의 특성과 교과 관점이 제시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과 교육과정을 교과의 ‘성격’과 ‘목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초등에서 2007 개정 및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성격을 기술하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2007 개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 정리하였다. 중등도 마찬가지로 교과 관점을 도출하였으며, 초·중등은 공통적인 관점이 있어야 하지만,

위계적 관계에 따른 차별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초·중등을 위한 공통적인 관점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목표도 마찬가지로 비교 분석한 후, 교육과정 성격에서 제시한 교과 관점과 목표에서 제시한 교과 관점을 통합하여 교과서 평가기준을 위한 최종 교과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표는 교과의 일관된 관점 도출을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가정생활 영역의 ‘성격’, ‘목표’를 중심으로 공통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도출 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용어를 도출하여 교과 관점으로 간주하되,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참고하여 교과 관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초등과 중등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각각의 표로 제시하였다.

<Table 1>에 의하면, 초등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개인과 가족생활 관련 일의 이해, 체험적인 활동, 기초적인 생활 지식과 기능, 통합적 역량과 삶의 변화에 대한 대처, 자기 관리

역량, 생활 소양 및 생활 문제 해결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Table 2>에 의하면, 중등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생활 문제 및 문제 해결 역량, 삶의 변화 이해에 근거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천에 있어서의 삶의 질, 진로와 생애 설계, 그리고 자기주도적 생활 등이 도출되었다. 교육과정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초·중등을 포함하는 가정생활 영역 전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과 관점으로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특성과 동시에 위계에 따른 차별적 특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Table 3>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를 비교하였으며, 거의 유사하여 공통적 관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개인과 가족의 이해, 가족 관련 생활 역량,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 건강한 가족생활 소양 등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핵심역량과 유사한 관점들이 공통적인 내용으로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Elementary Home Economics Perspective in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 2007 CURRICULUM | 2011 CURRICULUM | COMMON PERSPECTIVES |
|---|---|---|
| Understand the meaning of works for basic individual and family life, and its interrelationship | Understand the meaning of work to be needed for individual and family life,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m through laboring experiential activity | ⇨ Meaning of work for individual and family ⇨ Experiential activity |
| | Find the meaning of work through creative crafting laboring | |
| | Understand the meaning of work for individual and family life through laboring experiential activity | |
| internalize healthy life attitudes toward their own lives through learning basic life knowledge and skills | Develop basic life knowledge and skills | ⇨ Basic life knowledge and skills |
| Develop cooperation competency, cognitive thinking and attitude regarding their relationships with themselves, family, environment, and integrative competency regarding based on understanding of life | Develop competence to cope with change of life in present and future time | ⇨ Integrative competency for coping with the change of life(based on understanding of life) |
| | Doing practical activities in their own responsible lives | |
| Understand appropriately the relationship of self, others, environment, and things, and develop management competence their relationship | Develop self-management, creativity, problem-solving, career development as core competencies | ⇨ Management competency |
| Develop life literacy related individual and family | Investigate life problems for contributing to creative problem-solving | ⇨ Life literacy and life problem-solving |
| | Develop life literacy needed for real life | |
| | Inquiry life problems and creative solving | |

Table 2. Secondary Home Economics Perspective in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 2007 CURRICULUM | 2011 CURRICULUM | COMMON PERSPECTIVES |
|---|--|---|
| Develop problem-solving competence regarding life problems within individual and family life | Solve life problems through learning experience | ☞ Life problems and problem-solving competency |
| Develop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competence for individual and family life | Develop highly-level thinking skills through practical problem solving processes | |
| Develop a problem-solving competence through applying knowledge, skills, valuing to their own lives and through cognitive activities including problem-solving, creativity , and decision-making competency | Develop self-management, practical problem-solving, creativity , career develop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as core competencies | |
| Develop healthy attitudes regarding work and family life | Understand various phenomenon and change of environment related to family life | ☞ Healthy(independent & environment-friendly) individual and family life based on understanding of change of life |
| | Understand individual and family | |
| | Develop competence for independent life and healthy family | |
| | Perform independent and environment-friendly life | |
| Improve of quality of life in practice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practice | ☞ Quality of life in practice |
| Design their own career and life planning | Design career and life as life planning /Establish the values regarding work and vocation, design their own life and career | ☞ Career and life planning |
| develop life competency with self-directed way |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elf-directed life | ☞ Self-directed life |

위에서 도출된 관점들을 나열해 보면, 통합능력, 관리능력, 체험적 활동, 개인과 가족의 이해, 생활소양 혹은 생활역량, 문제해결, 그리고 생애설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의 핵심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초등 가정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진로개발능력이라고 하였고, 중등 가정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하였다. 앞서 도출된 관점과 비교해 보면,

관리능력, 문제해결, 생애설계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능력, 실천적 경험, 개인과 가족의 이해, 그리고 생활역량에 관한 관점은 핵심역량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관점으로서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Table 4>는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도출된 교과 관점과 ‘목표’에 제시된 관점을 하나의 표에 동시에 제시하여 공통적인 교과 관점을 도출한 것이다.

위 표는 교육과정의 ‘성격’에 포함된 초·중등 교과 관점

Table 3. Home Economics Perspective in Objectives of Curriculum

| 2007 CURRICULUM | 2011 CURRICULUM | COMMON PERSPECTIVE |
|---|--|--|
| Understand individual and their family | Understand individual and family | individual and family understanding |
| Develop basic abilities for family life | Develop basic life skills for family life | basic competency for family life |
| Solve practical problems in facing family life | Solve practical problems around your own lives | practical problems- solving competency |
| Develop literacy for creating family life culture | Develop competence and attitudes for living as healthy individual and family members | healthy family literacy |

Table 4. Home Economics Perspective presented by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of Curriculum

| CHARACTERISTICS | | OBJECTIVES | SUBJECT PERSPECTIVES |
|---|---|---------------------------------------|--|
| (elementary) Management competency | + | Basic competency for family life | Management Competence |
| (elementary) Basic life knowledge and skills (secondary) Self-directed life | | | Life Literacy or Life Competence |
| (elementary) Experiential activity (secondary) Quality of life in practice | | Healthy family literacy | Practical Experience |
| (elementary) Integrative competency for coping with the change of life (secondary) Healthy individual and family life based on understanding of change of life | | Individual and family understanding | Integrative Competence for Understanding Individual and Family |
| (elementary) Meaning of work for individual and family (secondary) Career and life planning | | Practical problems-solving competency | Career and Life Planning |
| (elementary) Life literacy and life problem-solving (secondary) Life problems and problem-solving competency | | | Life Problem-Solving |

을 유사한 것끼리 묶은 후, ‘목표’에 포함된 관점을 함께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제시된 교과 관점을 도식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리역량, 생활소양 및 생활역량, 실천적 경험, 개인과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역량, 진로와 생애 설계, 그리고 생활 문제 해결로 교과 관점이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과 교과 관점과의 관련성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초·중등 3개의 교과서 평가기준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초·중등 및 디지털 교과서 평가기준을 앞 절에서 도출한 교육과정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앞서 도출된 관점이 교과서 평가기준에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면 교과 관점이 매우 강조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교과 관점 관련 용어의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able 5.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and Perspective presented by National Curriculum

| | Common Perspective | | | | | |
|---|------------------------|----------------------|----------------------|-----------------------|----------------------------------|--------------------------|
| | Integrative competence | Practical experience | Life problem-solving | Management competence | Life literacy or life competence | Career and life planning |
| Practical Arts(2008) | × | ○ | ○ | △ | ○ | × |
|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2008) | × | ○ | ◎ | △ | ○ | × |
|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2008) | × | ○ | ○ | △ | ○ | × |
| Practical Arts(2011) | × | ○ | ○ | × | × | × |
| Secondary Technology · Home Economics(2011) | ○ | ○ | ◎ | ◎ | ○ | ◎ |
| Digital Technology · Home Economics(2012) | ○ | ○ | ○ | ○ | ○ | × |

◎: emphized ○: terminology presented △: similar terminology presented ×: not presented

위 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08년에 개발된 교과서 평가기준에 비해 2011년 혹은 2012년에 개발된 교과서 평가기준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출된 7가지 관점 중에서 실천적 경험 관점, 문제해결 관점, 관리적 관점, 생활역량 관점이 다른 관점들보다 교과서 평가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중등 교과서 평가기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2008년에 개발된 교과서 평가기준이 더 일관성이 있었다. 이는 2011년 교과 교육과정 개정 이후 초등 실과는 검정교과서로 중등 기술·가정은 인정교과서로 구분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과서 평가기준 역시 별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V. 향후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 개발 방향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국가 수준의 문서이다. 따라서 2007 개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관점들이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과교육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앞서 연구 문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제시된 교과 관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최근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들을 분석하여 향후 교과서 평가기준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 개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교과서 평가기준을 개발 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교과서 평가기준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과서 평가기준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특히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성격과 목표에 근거하여 교과서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평가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제로 평가기준에서 교과기준의 분량이 많지는 않다. 교과 정체성과 특성을 드러내는 항목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이 드러나는 교과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교과서 평가기준 간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초·중등 연계성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기준들의 일관성이다. 초등과 중등에서 강조되어야 할 관점은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은 어느 정도 위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급별 교과서 평가기준 간 혹은 디지털과 서책 교과서 평가기준 간에 교과가 추구하는 관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 평가기준을 개발할 때는 위계성과 일관성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내재되어 온 교과 관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교과서 평가기준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할 교과 관점은 통합적 관점, 실천적 경험 관점, 문제해결 관점, 생활 역량 관점, 관리적 관점, 생애설계 관점이다.

첫째,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교과의 통합적(integrative)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영역에서 통합적 관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며, 통합성은 교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원별 내용 대신 포함된 성취기준에서도 교과지식적인 부분과 수행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정영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론과 실천, 사고와 행동과 같은 통합적인 관점이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에서 교과기준으로서 포함된다면, 교과서를 집필할 때나 수업 현장에서 학습 자료를 활용할 때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정교육의 통합적 관점은 특히 개인과 가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라는 말은 자칫 가족 생활 내용 영역의 것으로 분류해 버릴 수도 있다. 물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가족생활 내용 영역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주체가 개인과 가족인 만큼 가정교과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과 가족의 이해를 발달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문화인류학적 접근 등을 융합하면서 더불어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대인관계 향상에 대해 교과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실천적 체험 관점 혹은 실천적 경험(practical experience)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천적 경험’은 그동안 교과 교육과정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의 하나로써 명실상부하게 교과의 핵심적인 특성임에 분명하다. 특히 초등의 노작적 체험 활동을 비롯하여, 실험·실습이 주요 교수·학습법이라는 것 그리고 학습한 교과 개념이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것 등 실천적 경험의 교과교육적 의미를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실천적 경험과 실천적 체험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주요한 교과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교과 관점이다.

셋째, 고등사고력을 강조하는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problem-solving)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 의사결정, 실천적 추론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은 중요한 관점이며, 특히 가정영역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사고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소비생활 환경 분석을 통해 건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며, 생활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교과의 관점이 되며, 이는 교과서를 통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현되어야 한다.

넷째, 생활역량(life competency) 혹은 생활소양(life literacy)이라는 교과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소양을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역량이라는 용어로 활용하고 있는데, 생활소양 혹은 생활역량이란 개인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교과개념인 동시에 교과가 지향해야 하는 관점이다.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향상시켜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만큼이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지식

이나 태도 등도 함께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관점을 향후 가정교과서 평가기준이 포함한다면, 교과서 집필할 때, 기초적인 생활역량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기관리(self-management) 교과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관리는 교과 관점인 동시에 가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역량이기도 할 정도로 기술·가정과의 핵심적인 관점임에 분명하다. 특히 초등교육 관점에서의 습관으로서의 자기 관리 능력에 범주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의 가정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다. 가정생활 환경은 개인과 가족이 접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환경, 글로벌 환경까지 포함하는 환경으로서 생태학적 접근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가족이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태학적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생활 관련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관리 능력은 무의미하며, 기술적 측면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생애 설계(life planning)라는 관점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생애설계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도 진로교육 내용과 연관 지어 개발되었던 내용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설계 관점은 교육과정 성격이나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교과서 평가기준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관점이다. 단지, ‘진로탐색 및 설계’와 ‘생애설계’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포함하는 생애설계 관점이 교과서 평가기준에 제시되어야 한다.

VI. 논의 및 제언

실과(기술·가정) 교과서는 제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필수교과로서 한국 교육과 함께한 전통을 가진 교과이다. 최근 교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도전이 있기에 현재 사회에서의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 그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교과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축적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논의를 축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교육에서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교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의 틀, 새로운 교과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교과 전문가들과 공유하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과 관련 평가기준 항목에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Alvermann 외(2007)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가 구성되어야 하며, 교과서 평가기준은 이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 평가기준이 교과의 특성이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교과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교과에서 강조하는 주요 개념이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학습 자료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가정 영역의 교과 관점을 도출하고,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로서 향후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교과의 교수·학습과정이 수업을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과서 평가기준에 이와 관련된 교과 관련 항목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평가기준이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 교과서 평가기준은 교과 학습의 지표이자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초등에서 중등에 이르는 학교급간 위계성과 교과서 평가기준 간 일관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로서 도출한 2007 개정 및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관점으로는 첫째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교과의 통합적(integrative) 관점이고, 둘째는 실천적 체험 관점 혹은 실천적 경험(practical experience) 관점이며, 셋째는 고등사고력을 강조하는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problem-solving) 관점이고, 넷째는 생활역량(life competency) 혹은 생활소양(life literacy)이라는 교과 관점이다. 다섯째는 자기관리(self-management) 교과 관점이고, 여섯째는 생애설계(life planning)라는 교과 관점이었다.

향후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 관련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실과와 중등 기술·가정교과서가 각각 검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중등 위계성을 가진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평가기준의 국제 비교 연구와 병행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connection)과 교과서 평가기준 간의 일관성(consistency)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향후 교과서 내용의 위계성, 통합성, 계열성 등과 같은 용어들에 대한 교과교육학적 의미 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교사들이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과 관련 평가기준들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교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교사교육에서 포함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가정교과서 평가기준 연구는 교과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그치지 말고, 교과 관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관점은 교과서 평가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기준, 교사 활동 평가기준 등 다양한 평가 틀에 포함되어야 할 교과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lvermann, D. E., Phelps, S. F., & Ridgeway, V. G. (2007). *Content area reading and literacy -succeeding in today's diverse classrooms*-(5th Ed.,). Boston: NY, Pearson Education, inc.
- Bell, L., & Lee, C. L. (2005). Using reading in content area strategies to improve student understanding i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23(2), 1-6.
- Cho, N. S., Hong, H. J., Song, H. J., & Kim, J. H. (2004). *Studies on changing system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xtbooks from government-issued to government- authorizing or adoption system*. Korea

-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Davis, K., & Alexander, K. L. (2009). A focused research agenda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results of a policy delphi study.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27(2), 30-44.
- Eom, K. H. (1994). New home economics textbook in middle school, how to deal with? *Korean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6(2), 175-183.
- Han, H. J. (2011). Current Issues in Curriculum(Ed.). In *Issues in Curriculum*, Margaret Early & Kenneth Rehage. 교육과학사.
- Jeon, S. K., & Park, J. Y. (1999). A study on the analysis of satisfaction and an evaluation criteria of textbook in practical arts subject.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2(2), 57-71.
- Jin, E. N. et al. (2011). 2011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Jin, J. K. et al. (2008).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기준 설정-.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uurala, S., & Rauma, A. (2008). Food and nutrition related values in Finnish health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secondary school textbook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26(1), 29-41.
- Kwon, L. R., & Yoon, I. K. (1998).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home economics textbook in the middle school. *Korean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10(1), 41-57.
- Lee, S. J. et al. (2007).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개설 연구 개발.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Y. S. (2010). An analysis on the units of 'adolescence self-management' and 'adolescence consumption life'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s: focusing on how the emphasis of the 2007 curriculum revision is reflected. *Korean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2(3), 55-75.
- Park, M. H. (2006). A study on the content innov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a reflected in social change and need. *Korean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18(1), 77-93.
- Seo, J. Y. et al. (2012). *Digital textbook cont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on developmen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Sim, J. H. et al. (2011a). *Textbook adoption criterion depending on the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at middle school leve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Sim, J. H. et al. (2011b). *Textbook authorization criterion depending on the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at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서 평가기준에 반영된 교과 관점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현재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점과 교과서 평가기준과의 관련성과 더불어 향후 교과서 평가기준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평가기준을 분석하고, 교과서 평가기준에서의 교과 관점의 의미를 탐색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교과 관점을 도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평가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점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교과서 평가기준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 평가기준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 관점을 제공하고, 교과에의 주요 개념과 가치를 전달하며,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교과 관점들은 관리역량, 생활역량, 실천적 경험, 개인과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역량, 생활문제해결, 그리고 진로 및 생애설계이다. 향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관점들에 터하여 교과서 평가기준의 항목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 자료 평가기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교사 활동 평가 등 다양한 평가 틀에 교과 관점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6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7월 02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08월 27일